

민족사상과 21세기 한민족 청소년육성

— 동학의 조화(造化), 지기(至氣), 시천주(侍天主) 개념을 중심으로 —

조 영 승*

- I. 서 설
- II. 동학사상의 이해
- III. 결 어

I. 서설(序說)

우리는 지금 산업화사회를 뒤로 한 채 첨단산업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화사회의 본격적인 전개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세계화 추세에 따라 지구촌사회를 형성하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무한경쟁이 전개되고 있으며, 산업화의 폐해로 인간성의 상실과 환경의 파괴라는 인류공멸의 위기에 처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전지구적 문제와 아울러 우리 사회는

민주·복지·통일 한국의 완성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함께 지니고 있다. 이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1세기 정보화·세계화의 사회를 향한 세계사의 흐름에서 뒤쳐져서는 안될 것이며, 그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거대한 문명사적 변환기에 세계사의 흐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우리를 바르게 성찰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에게 내재된 특질이 무엇인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우리를 바르게 성찰하는 것은 단지 현재의 우리 모습을 표피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형성한 과정과 그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만이 현재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재된 특질의 실체를 정확히 규명하고, 우리 스스로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근자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세계화’는 필연적인 변화의 추세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 피

* 한국청소년개발원장

할 수 없는 세계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다. 그중 하나의 방안이 바로 “가장 우리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 고유의 것을 고집하거나, 있는 그대로 세계에 드러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그에 걸맞는 방식을 찾아야 비로소 세계로 진출할 수 있다”라고 할 것이다. 즉, 우리 앞에 놓인 과제들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철저한 궁리와 적실한 이해에서 출발됨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궁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를 위한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지만, 그중의 하나가 바로 민족사상에 대한 이해일 것이다. 한 민족의 사상은 고유의 사상적 기저에 다양한 외래사상과의 교류와 습합과정이 결합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민족사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형성배경과 과정에 대한 이해일 뿐만 아니라 사상으로 정형화된 진수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근대 민족사상을 대표하는 동학(東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단편적이거나 우리 민족사상에 대한 이해를 시도하고자 한다. 동학을 비롯한 근대 민족사상은 우리 전통사회에 면면히 흘러온 유(儒), 불(佛), 선(仙)의 3대 사상에 대한 이해와 비판을 바탕으로 물밑듯이 동점(東漸)하는 서구열강에 대처하기 위한 자주적 인식을 통해 형성된 것들이다. 따라서 근대 민족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와 대외적 변화에 대한 대처방식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볼 것이지만, 동학사상의 핵심은 조화사상(造化思想)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조화사상은 우리 민족의 오랜 역사와 함께 한 정신문화 속에서 시원되고 발전되어 온 것으로

생각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으로부터 삼한(三韓)의 소도사상, 신라의 화쟁사상(和諍思想), 그리고 조선조를 풍미한 유교사상(儒敎思想)이 이어져 체계적으로 종합·정리된 것이 동학의 조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민족문화의 특성을 고찰한 여러 연구들을 보면 대체로 숙명주의·권위주의·사대주의 등을 단점으로, 화(和)의 정신·인본주의·주체성·덕치주의 등을 장점으로 열거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민족문화의 특성은 현대사회에 접어들면서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이념과 정치체제를 갖추고 각기 다른 길을 밟아오면서 변질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열거한 제특성 중 ‘화(和)의 정신’은 시대를 초월하여 빛나는 전통문화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화의 정신’은 한민족이 역사적인 변환기를 맞아, 민중·사회·국가의 갈등과 위기가 고조될 때 결실을 맺고 그 갈등과 위기를 헤쳐나가는 원동력이 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근대에 이 ‘화(和)의 정신’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시대에 대처하는 사상적 지표로 삼은 것이 바로 동학이며, 그 정수가 바로 ‘조화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학의 ‘조화사상’과 그 실천방법인 지기(至氣)와 시천주(侍天主) 개념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민족사상의 특성을 이해하는 한편, 그것이 이 시대에 갖는 의미를 청소년육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우리 스스로를 정확히 알고, 우리의 특질에 적합한 미래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처방식을 찾아보고자 한다.

II. 동학사상의 이해

동학은 수운 최제우(水雲 崔濟愚, 1824~1864)가 1860년 창시한 근대 민족사상의 하나이

다. 그는 사람에게에는 하느님(한울님)과 통하는 자리가 있다, 즉 “내 마음이 네 마음”이라는 상호공존의 진리를 득도(得道)하고 동학을 창시하여 험난한 역사의 변혁기에 처한 민중들의 삶을 계도하였다.

수운이 1860년부터 1863년까지 4년여에 걸쳐 완성한 동학사상의 근간을 편찬 수록한 것이 『동경대전』(東經大全)¹⁾과 『용담유사』(龍潭遺詞)²⁾이다. 이 두 책에 남아 있는 수운 자신의 저작을 통해 당시의 동학사상을 고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조화’(造化)³⁾의 개념과 그 의미가 동학의 중심이론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조화사상’의 핵심이 바로 ‘지기’(至氣)와 ‘시천주’(侍天主)의 개념이다.

1. ‘조화’(造化)의 뜻과 원리

1) ‘조화’의 뜻

먼저 ‘조화’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수운이 『동경대전』과 『용담유사』에서 사용한 용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⁴⁾

무릇, 아득한 옛날로부터 오면서, 봄과 가을이 갈마들어 대신하고 네 계절이 왕성해졌다가 쇠약해지고 하는 일은 옮기지도 아니하고 바뀌지도 아니하였다. 이것은 또한 천주(天主)의 조화(造化)로운 자취가 온 세상에 환히 나타남이다. 어리석은 민중이 비와 이슬을 내려주시는 은택(恩澤)을 모르고, 그것이 작위없이 저절로 되는 줄 알고 있다⁵⁾

사물의 이치를 궁구하여 그 지식을 완전히 하는 법과 백천만사 행하기를 조화중에 시켰으니⁶⁾

무궁한 조화 다 던지고 (천주의) 덕을 세상에 펼 것이니 도를 닦는 차례와 방법은 그뿐일세⁷⁾

개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造化)받아 하룻밤(一夜)에 멸(滅)하고서⁸⁾

장평에 몰린 많은 사람 한울님을 우러러서 조화중에 생겼으니 은덕은 고사하고 근본조차 잊을소냐⁹⁾

사람의 날마다 지내는 손발의 움직임 이는 역시 귀신이요, 선하고 악한 마음을 취하고 버리는 일

- 1) 동학의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이 1880년 경전인간소(經典印刊所)에서 완간한 동학의 경전으로 포덕문(布德文), 논학문(論學文), 수덕문(修德文), 불연기연(不然其然) 등을 수록하고 있다.
- 2) 1881년 동학의 제2대 교주 최시형(崔時亨)에 의해 처음 간행된 한글로 된 포교가사(布敎歌辭)로 1893년과 1922년에 재간행된 바 있다. 교훈가(敎訓歌, 1860), 안심가(安心歌, 1860), 용담가(龍潭歌, 1860), 몽중노소문답가(夢中老少問答歌, 1861), 도수사(道修詞, 1861), 권학가(勸學歌, 1862), 도덕가(道德歌, 1863), 흥비가(興比歌, 1863), 전결(劍訣, 1861) 등 9편을 수록하고 있다.
- 3) 글의 이해를 위해 조화의 의미를 우선 ‘온 세상을 닦고 죽이고 발육·변화시키는 자연의 힘과 제주, 대자연의 이치, 즉 모든 물건을 만들어 기르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이 신성한 섭리’라는 의미로 이해하기 바란다.
- 4) 呪文. 이 주문의 뜻은 뒤에서 상술하도록 한다.
- 5) 蓋自上古以來 春秋迭代 四時盛衰 不遷不易 是亦 天主造化之迹 昭然于天下也 愚夫愚民 未知雨露之澤 知其無爲而化矣 (布德文).
- 6) 격세만물(格致萬物) 하느님과 백천만사(百千萬事) 행하기를 도화 중의 시켜시니 (敎訓歌). 여기서 ‘격세’는 ‘격치’의 오기이다.
- 7) 무궁도화(無窮造化) 다 던지고 포덕천하(布德天下)할 것이니 차례도법(次第道法) 그뿐일세 (敎訓歌).
- 8) 마갓튼 왜적 놈을 한울님께 조화바나 (安心歌).
- 9) 당평징출(長平坑卒)만은 사람 한울님을 우러러서 도화중(造化中)의 성격스니 은덕(恩德)은 고사하고 근본(根本)조차 잊을소냐 (勸學歌). 여기서 長平坑卒은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와 진(秦)나라가 전쟁하여 조나라가 패하자 진의 장수 백기(白起)가 조나라 군사 40만명을 사로잡아 장평이라는 곳에 파묻어 죽였다는 고사를 인용한 것이다.

이는 역시 기운이요, 말하고 듣는 것 이 역시 조화로세¹⁰⁾

그리고 ‘조화’의 뜻 풀이에 해당하는 문귀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조화란 작위가 없이 저절로 화육(化育)함이고, 정(定)이란 그 덕에 합치하여 그 마음을 바르게 정함이다.¹¹⁾

나의 도는 작위함이 없이 화육(化育)하나니,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기운을 바로잡으며, 그 본성에 따르고 한울님의 가르침을 받아 자연스러운 가운데서 교화가 나온다.¹²⁾

그 임금에게 위(位)를 전해준 임금이 없었으니 법의 강령을 누구에게 받았으며, 그 스승에게는 가르침을 받은 스승이 없었으니 예의를 어디에서 본 받았을까?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나면서 알아서 그러한가? 작위없이 화육(化育)되어 그러한가? 나면서 알았다고 말해 보아도 마음은 깊은 어둠 속에 있고, 저절로 화육되었다고 말해보아도 이치는 아득한 사이에 멀다.¹³⁾

법을 정하고 글을 지어 도에 든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되어 무위이화(無爲而化) 될 것이니 지상신선(地上神仙) 네 아니냐!¹⁴⁾

무극대도 닦아내어 오는 사람 효유해서 삼칠자

전해주니 무위이화 아닐런가!¹⁵⁾

한울님의 덕과 합치함을 알았으니 무위이화 알지 마는¹⁶⁾

이상과 같은 용례와 풀이를 중심으로 수운이 제시한 ‘조화’의 뜻을 살펴볼 때, ‘조화’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위이화(無爲而化), 즉 “그저 저절로 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다시 용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그저 저절로 됨”이란,

첫째, 천주의 작용이다(天主造化).

둘째, 그 작용으로 우주만물이 있게 되었다(造化之迹).

셋째, 인간의 인식능력을 초월한다(無窮造化).

넷째, 한없이 규칙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는 됨이다(不遷不易).

다섯째, 그 됨은 없던 것이 있게 되어 그 있음이 끝없이 지속되는 됨이 아니라 없음과 있음, 있음과 없음이 번갈아드는 됨(春秋迭代, 四時盛衰)이다. 다시 말하면 “있던 것이 없게 되며, 없던 것이 다시금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됨, 즉 조화는 결코 단순히 있음을 통하여 된 것도 아닐 뿐더러, 또한 단순히 없음을 통하여 된 피동적인 됨이 아니라, 도리어 있음과 없음을 다 같이 있게 하는 그 능동적인 됨”인 것이다.¹⁷⁾ 따라서 있음과 없음

10) 사람의 수족동정(手足動靜) 이는 역시(亦是) 괴신(鬼神)이요 선악간(善惡間) 마암 용수(用捨) 이는 역시 기운(氣運)이요 말하고 웃는 거슨 이는 역시 도화(造化)로세(道德歌).

11)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 (論學文).

12) 吾道 無爲而化矣 守其心 正其氣 率其性 受其教 化出於自然之中也 (論學文).

13) 君無傳位之君而法綱何受 師無授訓之師而禮義安效 不知也 不知也 生以知之而然耶 無爲化也而然耶 以知而言之 心在於暗暗之中 以化而言之 理遠於茫茫之間 (不然其然).

14) 법(法)을 정(定)코 글을 지어 입도(入道)호 세상 사람 그날부터 군자(君子)되어 무위이화(無爲而化)될 것이니 더상신선(地上神仙) 네 아니냐 (敎訓歌).

15) 무극대도(無極大道) 닦아내야 오는 사람 효유(曉諭)히서 삼칠자(三七字) 전(傳)호 두니 무위이화(無爲而化) 안일런가(道修詞). 여기서 삼칠자는 21자로 된 주문(至氣今至 願爲人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 萬事知)을 의미한다.

16) 합기덕(合基德) 아라쓰니 무위이화(無爲而化) 아지마는 (與此歌).

은 항상 이 됨을 통하여 된 것들이며, 또한 이 됨은 있음과 없음의 두 계기를 하나로 지양하여 지닌 종합적·전체인 것이다. 一動一靜·一成一敗¹⁸⁾, 無往不復之理¹⁹⁾, 物爲物理爲理之大業²⁰⁾, 苦盡甘來興盡悲來²¹⁾, 無極大道²²⁾, 同歸一體²³⁾ 등의 표현은 다 이같은 ‘조화’의 뜻을 새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끝으로 조화는 인간이 깨달아 따라야 할 이치이며 그러기 위해서 인간은 어떠한 노력을 쏟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를 가진다(造化定, 造化巾).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인가. 이점이 바로 동학사상이 관념에 머물지 않고 사회의 실천윤리로서 기능하게 하는 부분이며 생명력있는 사상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수운(水雲) 자신이 당시 민중의 가난, 사회의 갈등, 정부의 부패, 민족의 위기를 직시하면서 그 해결 원리를 찾느라 고뇌하는 가운데 동학이라는 틀을 창제하였다. 따라서 당시의 일반대중이 생활에서 기울여야 할 노력으로서 ‘조화’의 의미를 정리하였다. 즉 ‘조화’의 자각 실현과 도법(道法)의 근본 소이연을 깨닫는다는 것은 결국 ‘무위이화’의 이치를 깨달아 알고 그 조화를 직접 부리어 실행함으로써 마침내 무궁한 천지조화를 도와 창조적으로 참여하는 데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따라서 수운이 ‘조화’의 뜻을 밝혀 놓은 것은 천주의 조화가 엮어 놓은 저 무궁한 진리들을 가

능하면 많이 알아 그에 따른다면 인간, 이 사회, 이 세계가 최대의 복지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임을 설파하기 위함이었다. 즉, 인간이 깨달아 따르려던 천주조화의 이치(德)에 일치되게 마음(心)을 정하여(定者 合其德 定其心)²⁴⁾, 이를 지켜 기운(氣)을 바르게 하면 타고 난 본성(性)에 천주의 가르침(敎)이 있게 되어 하고자 하는 일을 자연스럽게 성취할 수 있다(守其心 正其氣 率其性 受其敎 化出於自然之中也)²⁵⁾는 것이다.

덕(德), 심(心), 기(氣), 성(性), 교(敎)의 의미를 더 밝힘으로써 인간의 ‘어떠한 노력’을 보다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으나 이는 별도의 논의로 미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다만 천주조화의 덕에 합치되어 가르침을 받는 마음의 궁극적 상태는 ‘맑고 밝음’ 그 자체로 정리하도록 한다.

2) ‘조화’의 원리, 불연기연(不然其然)

수운(水雲)이 조화의 뜻, 즉 무위이화(無爲而化)의 운동원리를 논리적으로 부연 설파한 것이 『동경대전』의 ‘불연기연’(不然其然)이다.

수운은 여기에서 “만물의 이름과 모양”, “인간의 인간으로 됨”, “천황의 천황으로 됨”, “군자의 법강과 스승의 예의의 전수”, “사시의 차례 있음”, “산상에 물의 있음”, “갓난 아기의 부모 알아 봄”, “황하의 맑아짐”, “사람의 죽음”, “까마귀의 도로 먹임”, “제비의 주인 알아 봄”, 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 오묘한 진리를 다음과

17) 조충일(1990), 동학조화사상연구, 동성사, p.38.

18) 布德文.

19) 論學文.

20) 不然其然.

21) 安心歌.

22) 龍潭歌.

23) 勸學歌.

24) 論學文.

25) 論學文.

같이 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아, 이같이 헤아림이여 ! 그러함(其然)을 말미
암아 보면 그러한 것이 그러할 듯하고, 그러하지
아니함(不然)을 찾아서 생각하면 그러하지 아니하
고 또 그러하지 아니하다²⁶⁾

무릇 이와 같은 즉, 그러하지 아니함(不然)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말하지 못하
며, 이에 그러함(其然)은 아는 연고로 곧 그러한
것을 믿는 것이다²⁷⁾

만물의 그러하지 아니함(不然)이여 헤어서 밝히
고 기록하여 밝히리라²⁸⁾

반드시 그렇다고 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하지 아
니한 것(不然)이요 단정하기 쉬운 것은 그러한 것
(其然)이라²⁹⁾

먼 데를 캐어 전주어 생각하면 그렇지 않고 그렇
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일이요 조물자에 부쳐보면
그렇고 그렇고 또 그러한 이치인저³⁰⁾

수운은 이상과 같은 설명을 통해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 유형과 무형, 선과 악, 강과 약 등을
이원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하나(기
존의 질서, 其然)는 그전의 자기불연성(自己不然
性)의 궁극에서 기연(其然)으로 되었으나 그 기
연은 다시 그 자체의 자기불연성으로 인해서 불
연(不然)으로 회귀한다는 이치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런 것”과 “그렇지 않다”는

모순을, 배반물의 양극적 판단은 그의 대각 속에
서 조화를 이룬다. 절대통일의 자기분화성을 체험
함으로써 이 이율배반의 세계 풍광을 “불연(不
然)”과 “기연(其然)”의 두 명제로 표현했고, 이
이원화된 시공의 우주를 다시 절대모순의 자기동
일성(自己同一性)으로 환원시키려는 조화적 원리
를 전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수운(水雲) 자신이 ‘흥비가’(興比歌)에서 “약
간 약간 기록하니 여차여차 우여차라 이글 보고
저 글 보고 무궁한 그 이치를 불연기연(不然其
然) 살펴내여”라고 한 것은 인간이 조화의 진리
를 깨닫기 위한 노력을 할 때 준거하여야 할 사고
의 논리가 ‘불연기연’임을 시사하고 있는 대목이
다.

2. 지기(至氣)와 시천주(侍天主)

1) 지기(至氣)의 뜻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수운(水雲)이 서술한 기
록속에서 지기와 관련한 용례와 풀이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³¹⁾

하늘은 오행의 버리고 땅은 오행의 바탕이요 사
람은 오행의 원기이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삼
제의 헤아림을 이에 가히 알만하다.³²⁾

몸이 몹시 떨리고 추우며, 밖으로 신령에 접촉한

26) 噫 如斯之付度兮 由其然而看之則 其然如其然 探不然而思之則 不然于不然 (不然其然).

27) 夫如是則 不知不然故 不H不然 乃知其然故 乃恃其然者也 (不然其然).

28) 於萬物之不然兮 數之而明之 記之而鑑之 (不然其然).

29) 難必者不然 易斷者其然 (不然其然).

30) 此之於究其達則 不然不然 又不然之事 付之於造物者 其然其然 又其然之理哉 (不然其然).

31) 呪文.

32) 天爲五行之綱 地爲五行之質 人爲五行之氣 天地人三才之數 於其可見矣 (論學文).

기미(氣)가 있고 안으로 말씀을 내리시는 가르침이 있었으나 보아도 보이지 아니하고 들어도 들리지 아니하였다. 마음이 오히려 괴이하고 의심스러워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氣)을 바로잡으면서 물어 가로되 어찌 해서 이러합니까?³³⁾

나의 도는 작위함이 없이 화육(化育)하나니 그 마음을 가다듬고 그 기운(氣)을 바로잡으며³⁴⁾

몸에는 기화(氣化)의 신비가 없고, 행위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어서, 형체는 있으나 자취가 없고³⁵⁾

금지(今至)라는 것은 이에 도에 들어 그 기운(氣)이 접촉함을 아는 것이며 ... 대강(大降)이라 하는 것은 기화(氣化)를 바람이다³⁶⁾

시(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氣化)가 있어서³⁷⁾

그러므로 그 덕을 환하게 밝히어 잠시도 잊지 아니하면 지극한 기운(至氣)을 잘 본받아 매우 성스러운 데 이르게 되는 것이다.³⁸⁾

그러하되 군자의 덕은 기운(氣)에 정대함이 있고 마음에 확정됨이 있어 ... 소인의 덕은 기운(氣)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에 옮김이 있는 연고로³⁹⁾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옛 성인이 가르치신 바이며, 마음을 가다듬고 기운(氣)을 바로잡음은 오로지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⁴⁰⁾

한번 웃고 죄다 내친 후에 그 특의한 마음(기운, 氣)을 이길 수 없더라⁴¹⁾

기묘하고 우뚝하구나, 구미산의 기운(氣)이 기묘하고 우뚝하구나⁴²⁾

집안살림 다 써서 없애고 한결같은 마음과 정기(精氣) 다시 먹고⁴³⁾

밝은 기운(氣)은 반드시 이름난 산 아래에 있어라⁴⁴⁾

선하고 악한 마음을 취하고 버리는 일 이는 역시 기운(氣)이요⁴⁵⁾

마음을 지키고 기운(氣)을 바르게 하여 인의예지(仁義禮智) 지켜 두고⁴⁶⁾

이상의 글귀에서 보면 ‘지기’(至氣)는 두번 정도 쓰였으며, 그외에는 거의 ‘기’(氣)로만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기’(氣)에 대한 뜻을 풀이하고 있다.

33) 身多戰寒 外有接感之氣 內有降詔之教 視之不見 聽之不聞 心尙怪訝 修心定氣而問曰 可爲若然也 (論學文).

34) 吾道 無爲而化矣 修其心 正其氣 (論學文).

35) 身無氣化之神 學無天主之教 有形無迹 (論學文).

36) 今至者 於斯入道 知其氣接者也 ... 大降者 氣化之願也 (論學文).

37)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論學文).

38) 故 明明其德 念念不忘則 至化至氣 至於至聖 (論學文).

39) 然而 君子之德 氣有正而心有定 ... 小人之德 氣不正而心有移 (論學文).

40) 先聖之所教 修心正氣 惟我之更定 (修德文).

41) 일소일과(一笑一罷) 하 온 후의 불승기양(不勝氣揚)되야더라 (敎訓歌).

42) 괴장(奇壯)하다 괴장(奇壯)하다 구미산괴(龜尾山氣) 괴장하다 (龍潭歌).

43) 탕진가산(蕩盡家產) 하여 너여 일심정괴(一心精氣) 다시 먹고 (夢中老少問答歌).

44) 명괴(明氣)는 필유명산하(必有名山下)라 (夢中老少問答歌).

45) 道德歌.

46) 수심정괴(修心正氣) 하여 너여 인의예지(仁義禮智) 지켜 두고 (道德歌).

“지(至)라는 것은 지극함이다. 지기(至氣)라는 것은 빈 듯 영묘하고 아득해서 간섭하지 아니하는 일이 없고, 분부하지 아니하는 사물이 없으며,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릴 듯하지만 볼 수 없으니 이것이 또한 차별없이 으뜸가고, 한결같은 기운이다.”⁴⁷⁾

즉 ‘지’(至)라는 것은 지극한 것이요 ‘기’(氣)라는 것은 허령창창하여 일에 간섭하지 아니함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아니함이 없으나, 그러나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형상하기 어렵고 들릴 듯 하나 보기가 어려우니, 이것은 또한 혼연한 한 기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와 ‘기’를 합쳐 ‘지기’(至氣)로 쓰고 있는데 대하여 여러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으나 위의 용례와 풀이로 볼때 ‘지기’란 ‘지극(至極)한 기운(氣運)’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의 종류가 ‘지기’와 ‘기’로 나누어 지는 것이 아니라 ‘기’의 뜻 속에는 ‘지’의 의미가 이미 담겨져 있어 ‘기’자만 쓰는 경우에도 그것은 ‘지기’임과 다른 바 없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주만물의 성장과 변화의 근원이 무엇이나에 답하려고 하는 인류의 노력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계속되고 있다. 유물론(唯物論)과 유심론(唯心論), 이기이원론적 주리론(理氣二元論的 主理論)과 주기론(主氣論), 기일원론(氣一元論), 창조론(創造論)과 진화론(進化論) 등이 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설(說)들이다.

이 가운데서 중국에서 ‘氣’라고 파악한 것을 한국인은 ‘한’(一과 무한을 같이 의미한다)으로 파악했다. 단군신화에서 환인(桓因), 환웅(桓雄)으

로 표시된 ‘桓’은 ‘환하다’는 광명을 한자음으로 표시한 것인데 광명은 하나인 동시에 천지에 보편적으로 충만하여 그것이 ‘한’이 되고 ‘한’을 주재하는 ‘하느님’ 사상도 생겼다.

하느님은 동학에서 ‘한울님’이라 하고 서학(西學)에서는 ‘천주(天主)’ 또는 ‘하느님’이라 하였는데 우리 한국인이 옛부터 신앙하여 온 ‘한울님’을 수운(水雲)이 다시 찾아서 그 본질이 지기(至氣)임을 밝혀냈다고 하겠다.

현대 자연과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의 32승분의 1초의 대폭발때 생기는 10의 27승 온도에서 살아 남은 양성자와 전자가 물질의 시원인 것으로 본다. 그 무기질의 물질이 고질화하면서 원시 주세포(主細胞)가 생기고 거기에 이입해 들어가서 공생하게 되는 시아노박테리아가 식물세포로, 스피로헤타박테리아가 동물세포로, 미토콘드리아가 인간으로 진화하여 오늘날 지구상의 식물, 동물, 인류가 있게 된 것으로 보는 설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과연 그 대폭발이 일어나게 된 근본원리는 무엇이며, 원시주 세포의 박테리아가 식물, 동물, 인간으로 변화하는 근본원인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아마 다른 무엇인가로부터 그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동학은 바로 그러한 근본원리, 궁극의 근원을 ‘지기(至氣)’라고 파악하였다. 이를 다시 수운(水雲)의 용례와 풀이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기’는 첫째, 우주만물의 생성·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원으로(無事不涉 無事不明), 둘째, 특정 모양이나 형식을 가지지 아니하며(難狀, 難見), 셋째, 인간을 비롯하여 만물에 내려지는 기운으로서(今至大降, 接靈, 氣接), 넷째, 그 모습은 맑고 맑은 허령이다(虛靈蒼蒼). 여기서 허령

47) 至者 極焉之爲 充氣者 虛靈蒼蒼 無事不涉 無事不命 然而如形 而難狀 如聞而難見 是亦單元之一氣也 (論學文).

은 다음에 살펴 보겠지만 천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지기는 천주이며 ‘맑음’(蒼蒼)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2) 시천주(侍天主)의 뜻

수운(水雲)이 ‘시’(侍) 또는 ‘시천주’(侍天主)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데에서 그 용례를 볼 수 있다.

至氣今至 願爲大降 侍天主造化定 永世不忘萬事知⁴⁸⁾

一番致祭 永侍之重盟⁴⁹⁾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을 믿었어라 네됨에 모셨으니 사근취원(捨近取遠) 하단말가⁵⁰⁾

그리고 ‘시’(侍)의 뜻을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금지(今至)라는 것은 이에 도에 들어 그 기운이 접촉함을 아는 것이며 원위(願爲)라는 것은 청하고 비는 뜻이며, 대강(大降)이라는 것은 기화(氣化)를 바람이다. 시(侍)라는 것은 안에 신령이 있고 밖에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옮기지 못할 것을 앞이다. 주(主)란 그 존경함을 이름이니 어버이와 한가지로 섬기는 것이고, 조화(造化)란 작위가 없이 저절로 화육함이고, 정(定)이란 그 덕에 합치하여 그 마음을 바르게 정함이다. 영세(永世)라는 것은 사람의 평생이요, 불망(不忘)이라는 것은 티없이 곱게 생각한다는 뜻이

다. 만사(萬事)라는 것은 수의 많음이요 지(知)라는 것은 그 도를 알아서 그 슬기를 받음이다.”⁵¹⁾

이를 통해서 볼 때 ‘시’(侍)는 안으로 신령이 있어 기화됨을 알아서 옮기지 못할 것임을 아는 것을 의미한다.

수운은 그의 글 전체에서 천주를 선(仙), 신선(神仙), 영(靈), 신령(神靈), 천령(天靈), 신(神), 귀신(鬼神), 상제(上帝), 조물자(造物者)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고, 천주에 대한 풀이가 따로 없는 것으로 보와 위 풀이에서의 신령은 천주를 의미하므로 ‘시’는 이미 천주를 포함하고 있어 ‘시천주’와 같다고 해석된다. 이를 나누어서 살펴보면 ‘시천주’라는 것은 마음 속에 있는 한울님으로부터(內有神靈, 네 몸에 모셨으니), ‘기’를 받을 수 있도록(外有氣化), ‘천주’를 잘 모시는 행위 내지 상태(父母同事)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시천주’는 한울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으로 ‘내유’(內有)와 ‘외유’(外有)로 따로 분리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영’(靈)이 마음안에 기화되는 상태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 모습은 환한 ‘맑음’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기(至氣)와 시천주(侍天主)의 관계

앞에서 ‘지기’는 우주만물의 생성,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천주의 조화기능의 원천으로서 그 모습은 형상이 없는 ‘맑음’ 그 자체이며, ‘시천주’는 우리 인간이 한울님의 뜻에 따라 행복하게 살기

48) 呪文.

49) 修德文.

50) 敎訓歌.

51) 今至者 於斯入道 知其氣接者也, 願爲者 誦祝之意也, 大降者 氣化之願也, 侍者 內有神靈 外有氣化 一世之人 各知不移者也, 主者 稱其尊而與父母同事者也, 造化者 無爲而化也, 定者 合其德 定其心也, 永世者 人之平生也, 不忘者 存想之意也, 萬事者 數之多也, 知者 知其道而受其知也 (論學文).

위하여 한울님을 잘 모시는 마음의 상태요 그 모습은 ‘밝음’ 그 자체라고 파악하였다. 따라서 ‘지기’는 천주조화의 근원으로 ‘맑음’이 그 모습이며, ‘시천주’는 그 상태를 통하여서만 지기가 인간에게 내려지는 길이요 ‘맑음’이다. 이 둘은 인간이 ‘수심정기’(守心正氣)의 노력으로 천주의 ‘조화’를 깨달아 응응, 실현, 구현할 수 있는 ‘심(心)’, 즉 ‘맑고 밝음’ 안에 포괄되는 것이다.

결국 ‘지기’는 인간이 알아야 할 천주조화의 근본이며 ‘시천주’는 이에 합치하기 위한 인간의 자세이다. ‘시천주’의 자세로 ‘지기’의 무위이화하는 큰 덕에 합치한다면 나 자신이 ‘지기’ 그 자체가 되는 것이다.

III. 결어(結語)

지금까지 수운(水雲)의 생애와 시대, 그가 남긴 글을 통해 동학의 내용 일부를 살펴 보았다. 이를 다시 요약하여 동학의 사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주’가 있어 그 ‘조화’ 기능으로 ‘지기’를 충만케 함으로써 우주만물을 생성, 변화시킨다(宇宙觀, 世界觀, 神觀: 유심과 유물, 창조와 진화의 수용).

둘째, 그 천주는 우리 인간에 있어서 밖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접할 수 있다(神觀, 人間觀).

셋째, 그래서 인간은 ‘수심정기’의 극진한 노력을 기울이면 천주 조화의 질서를 깨달아 복되게 살 수 있다(道德觀).

넷째, 그 노력의 과정에서는 ‘불연기연’의 이치를 유념하여야 한다.

이를 종합하여 ‘조화사상’(造化思想)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화사상’은 인간에게 ‘시천주’를 통하여 ‘무위이화’, ‘불연기연’하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외경(畏敬)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그 덕에 일치되게 마음을 정하여 이를 지켜 기운을 바르게 하면 타고난 본성을 자연스럽게 발현·성취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글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덕(德), 심(心), 기(氣), 성(性), 교(敎)의 구체적인 의미를 밝힌다면 인간이 기울여야 할 노력과 그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나, 여기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청소년육성을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시천주’는 온 세상 사람들이 각각 옮기지 못할 마음 바탕을 티없이 곱게 간직하는 행동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제 안에 있는 옮길 수 없는 것은 바로 단순 소박이다. 하늘의 뜻과 서로 통하는, 자신의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바탕을 어버이처럼 섬김으로써 체득되는 신비란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통해 느끼는 생의 환희이다. ‘조화정’(造化定)과 ‘만사지’(萬事知)는 하나에서 여럿으로, 같음과 다름으로서, 통일과 다양으로서 서로 대응하고 있다.⁵²⁾

“내 마음이 네 마음”(吾心卽汝心)이라 한 것처럼 인간은 큰 덕에 일치하는 본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어느새 인간은 “맑고 밝은”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 바탕을 잊고서 모두 제각기 딴 마음을 먹고 있다(各自爲心). 단순하고 소박함을 잊은 마음은 거짓되고 치우친 행동을 하게 되고 징직과 관대함까지도 잊기 마련이다. 이를 바로 잡는 길은 경천순천(敬天順天)의 길을 깨우치고 합기덕(合其德)하기 위한 수심정기(守心正氣)의 적

52) 김인환. 1994. 『동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p. 51.

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이것은 또한 단순히 개인의 수신(修身)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이치를 거스리고, 세상을 미혹하고, 역천(逆天)하는 것은 결국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를 야기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따라서 동학이 제시하고 있는 길은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추구하는 노력이다.

우리는 여기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해법을 보게 된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해소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현대사회는 이분법적이고 분석적인 사고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의 선택이 강요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기의 전환과 맞물린 문명사적 변환 앞에서 기존의 가치체계는 무력화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우리 사회는 아직도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치체제 아래 대립과 갈등이 계속되어 이에 따른 위기감이 상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분화에 따른 소집단주의의 폐해도 나타나고 있다. 동학사상에 나타나는 순리에 바탕한 공동체의식의 회복은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대립적으로 보이는 것들을 불연기연의 이치를 통해 절대모순의 자기동일성으로 환원시키는 동학의 통합적 사고의 자유로움은 서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분석적 사고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분석적 사고는 사물에 대한 이해를 구체적으로 분화시킨다. 따라서 대립과 분리는 분석적 사고의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체를 유기적으로 파악할 때 대립과 분리는 하나로서 포용될 수 있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인간, 관념론과 유물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질적 존재간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는 현대사회의 병리적 현상들은 동학의 사상에서는 모두 서로의 소이연일 뿐 서로 다름이 아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동학사상에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남북통일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이질적 체제간의 갈등 해소와 대립 극복을 가능케 하는 사상적 포용성을 찾아볼 수 있다. 민족의 통일을 이룩하는 한편 향후 예상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의 이질적 구조를 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상적 틀이 필요하다. 이때 동학이 제시하는 통합적 사유의 체계가 그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양극화된 체제와 사상의 대결 속에서 형성된 이질적 요소간의 갈등이 포용되고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비하여 남북의 주민들이 통일된 국가의 성원으로서 가져야 할 화합에 바탕한 공동체의식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함은 독일의 사례에서 여실히 증명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남북으로 갈린 체 관념론과 유물론, 민주주의와 독재주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등 대립적 이질구조가 심화되어 있는 이 민족적 시련을 동학의 조화사상으로 접근, 해결하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면 동학사상이 펼치는 이 새로운 지평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새로운 문명을 열어나갈 다음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열린 사고, 바른 안목과 삶의 자세를 키워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은 성장하는 존재이며, 가능성의 존재이다. 그들은 완성을 지향해나가는 존재이며, 본래의 '맑고 밝은' 심성이 기성세대만큼 크게 훼손되어 고착되버린 존재가 아니다. 따라서 합기덕

53) 陰陽相均 雖百千萬物 化出於其中 獨惟人最靈者也 故定三才之理 出五行之數 (論學文).

(合其德)의 가능성 또한 기성세대에 비해 훨씬 넓게 열려져 있다. 안(內)과 밖(外), 심(心)과 기(氣)가 하나로 조화됨을 지향하는 동학의 사상은 청소년의 덕성 함양을 통해 지성 계발의 근본 바탕을 마련하고 청소년의 조화로운 성장을 추구하는 청소년육성의 근본취지와 일맥상통한다. 또한 단순하고 소박한 마음의 회복을 통한 병든 사회윤리에 대한 근원적 치유는 사회와 환경, 생활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청소년육성에 시사하는 바 크다.

수운은 인간을 만물 중 ‘최령자’(最靈者)로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수운이 말하는 최령자로서의 인간은 자연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나를 위해 상대를 부정하고 과멸시키는 인간이 아니라 음양의 변화의 중심에서 조화롭게 질서잡아 가는 상생적(相生的) 존재이다.⁵³⁾ 이러한 인간이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수심정기’(守心正氣)이며, 그 사고체계가 바로 ‘불연기연’(不然其然)이다. 자신의

본래 맑고 밝은 심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기성세대의 솔선과 모범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사회환경이 자리잡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본래 지닌 맑음(內有神靈)을 밝게(外有氣化) 펼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청소년육성의 터전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일상생활부터가 ‘사람됨’의 과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운이 밝힌 동학사상을 통해 ‘사람됨’을 지향하는 우리 고유의 사상적 지향은 오늘 이 시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에까지도 관철될 수 있는 보편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다. 동학을 통해 본 우리 사상의 ‘사람됨’의 뜻,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 청소년육성의 뜻을 바르게 세워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천해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돈구. 1992. 『한국 근대종교와 민족주의』, 집문당.
- 길 로. 1992. 『시천인간』, 개벽사.
- 金京一. 1974. “東學倫理 思想과 實存主義”,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기선 편. 1991. 『(주)혜설]응답유사』, 자농.
- 김기선. 1991. 『(한글)동경대전』, 자농.
- 金吉蘭. 1974. “東學의 基本思想에 關한 研究 : 민족적인 윤리관을 위한 관점에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大石. 1993. 『東學의 侍天主思想에 關한 研究』,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金庠基. 1975. 『東學과 東學亂』, 한국일보사.
- 金琬洙. 1993. 『東學天道敎史』, 사범행정문화원.
- 김인환. 1994. 『동학의 이해』, 고려대학교출판부.
- 金昌經. 1985. “東學思想에 關한 一研究”, 崇田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金哲編. 1989. 『東學精義 : 東經大全 解説』, 東宣社.
- 金 哲. 1992. 『東學(天道敎)理論의 概要』, 東宣社.
- 盧泰久. 1981. “東學과 太平天國革命의 比較研究 : 韓國民族主義의 理念定立에 關하여”, 高麗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노태구. 『한국정치의 연구방법에 대하여 - 동학을 중심으로 -』, 경기대학교 경기행정론

집 제7집.

- 노태구. 1991. 『현대정치학의 이해』, 경기대학교 학술진흥원.
- 魯英弼. 1992. “東學의 ‘한울님(天)’ 思想에 관한 研究”, 全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閔相順. 1994. “東學의 神觀에 나타난 教育思想 研究 : 侍天主를 中心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應三. 1976. 『東學思想 概論』, 圓谷文化社.
- 白世明 編. 1964. 『東學經典解義』, 日新社.
- 白世明. 1956. 『東學思想과 天道教』, 東學社.
- 申福龍. 1985. 『東學思想과 甲午農民革命』, 평민사.
- 신복룡. 1978. 『동학사상과 한국민족주의』, 평민사.
- 申富徹. 1982. “東學의 倫理觀”,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신일철. 1995. 『동학사상의 이해』, 사회비평사.
- 沈亨珍. 1988. “東學에 나타난 人間中心主義 教育思想 研究”,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嚴妙燮. 1974. “東學의 社會構造的 性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병덕 편. 1993. 『동학. 천도교』, 교문사.
- 尹成万. 1981. “東學革命의 背景과 思想”, 朝鮮大學校 教育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李康一. 1993. “東學의 人本主義 教育思想”,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문 감수. 1992. 『동아세국어사전』, 동아출판사.
- 李吉鎔. 1991. “初期 東學의 人間觀 研究 : 水雲과 海月을 中心으로”, 西江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이길우 외. 1993. 『철학의 이해』, 강원대학교출판부.
- 李世權 編. 1986. 『東學經典』, 正民社.

- 李忠基. 1974. “東學思想이 近代韓國人의 意識形成에 미친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憲東. 1994. “東學의 教育觀 研究”,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李炫熙 編. 1989. 東學思想과 東學革命, 청아출판사.
- 李禧柱. 1983. “東學思想의 理論的 檢討”,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林泰弘. 1995. “東學 神觀의 形成過程 研究”, 성균관대학교 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張大熙. 1983. “東學의 民衆教育思想研究”, 中央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張昌河. 1979. “東學思想 및 東學革命에 관한 研究 : 民族主體性和 近代志向性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경호. 1992. 『시천인간』, 개벽사.
- 趙鏞一. 1986. “東學의 造化思想에 關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박사학위논문.
- 조용일. 1990. 『동학조화사상연구』, 동성사.
- 陳正太. 1983. “唱道期の 東學 思想에 관한 研究 : 政治社會的 性格을 中心으로”, 慶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崔彰圭. 1966. “東學에 關한 研究”, 延世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韓國精神文化研究院 編. 1994. 『韓國近代史에 있어서의 東學과 東學農民運動』, 韓國精神文化研究院.
- 한국철학회 편. 1987. 『한국철학사』, 동명사.
- 韓國學文獻研究所 編. 1978. 『東學思想資料集』, 亞細亞文化社.
- 韓東雲. 1995. “東學思想의 이데올로기의 分析”,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선명 외. 1983. 『한국근대민중종교사상』, 학민사.